

# “강력범죄 불안” 내 집앞 CCTV 설치해주오

### 광주 민원 신청 600여건 ‘붐물’...내년 계획은 20대 불과

### 대당 설치비용 1600만원 등 운영비 포함 막대한 자금 소요

### 범죄예방·범인검거 ‘효과적’...수요 급증에도 설치율은 저조

최근 귀가하던 여성을 아파트 현관에서 성추행하고 달아나는 등 ‘내 집앞’ 강력범죄에 대한 불안 심리로 인해 시민들의 CCTV 설치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예산부족 등으로 광주시의 내년 CCTV 설치 계획은 민원 접수건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10일 SNS ‘페이스 북’에는 “혹시 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라는 글과 CCTV에 찍힌 남성의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이들은 지난 9월27일 광주시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의 목을 조르고 성추행한 뒤 달

아나 신원미상의 남성에 대해 공개수배에 나선 것이다.

피해여성 가족들은 “경찰도 못 믿겠다”며 “사건발생 2주가 지났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고 불안에 떨다가 직접 CCTV 화면을 캡처해 수배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광주시 광산구 신촌동에 거주하는 김가희(여·21)씨도 귀갓길이 불안해 CCTV를 설치해 달라고 민원을 접수했지만 ‘감각무소식’이다. 김씨의 집은 지하철 입구(광주공항)에서 으스스한 도로변을 따라 10분가량 걸어야 하는데 CCTV가 한 대도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김씨는 “요즘 인터넷에서 납치와 장기

밀매, 성폭행 같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어 귀갓길이 불안하다”며 “야간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인적이 드문 귀갓길에 CCTV가 있다면 그나마 마음이 놓일 것 같다”라고 말했다.

11일 광주시 통합관제센터에 따르면 현재 광주시에 설치된 CCTV는 총 3106대로 ▲방범용(1414대) ▲재난재해(27대) ▲어린이보호구역(1596대) ▲차량번호인식(69대) 등이다. 지난 2011년 1331대에서 무려 3배가 늘어난 것으로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 설치된 CCTV는 방범용 10대와 어린이보호구역 130대에 불과하고 내년 설치예정도 방범용은 20대에 불과해 1년6개월간 접수된 설치 민원 600건에 비교하면 8%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처럼 범죄예방과 범인 검거에 효과적인 CCTV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막대한 설치비용과 운영비가 만만치 않아 시민들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 범죄 취약구역에 CCTV 1개소(2대)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만 1620만 원으로 매년 광주시에 설치된 3106대의 전기·통신료 등 ▲운영비(38억3500만원) ▲인건비(26억9800만 원) ▲추가 설치비용(10억9800만 원) 등 한해 예산만 76억 원이 넘어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관제센터 개소 후 광주시 4대 강력범죄 발생률이 5.6% 감소했으며 영상을 통해 검거한 범인 355명, 화상순찰로 121명을 검거하는 등 혁혁한 성과에 걸쭉한 예산부족만 탓할 게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 통합관제센터 관계자는 “집 근처와 골목길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하루에도 수차례씩 접수되지만 예산문제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경찰과 협조해 범죄 취약구역 등 우선순위 설치대상을 정해 차근차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1    해질 22:45  
해짐 17:21    맑음 11:15

**동창군 기승**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오전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 다음날까지 이어지겠다.

◇지역별 날씨(℃)

|    |       |      |     |        |      |
|----|-------|------|-----|--------|------|
| 광주 | 눈     | -1/3 | 보성  | 차차흐려져  | -2/5 |
| 목포 | 눈     | 0/4  | 순천  | 구름많음   | -1/6 |
| 여수 | 구름많음  | 1/6  | 영광  | 눈      | -1/3 |
| 나주 | 차차흐려져 | -3/4 | 진도  | 눈      | 1/4  |
| 완도 | 차차흐려져 | 1/4  | 진주  | 차차흐려져  | -3/3 |
| 구례 | 차차흐려져 | -3/5 | 군산  | 눈      | -3/3 |
| 강진 | 차차흐려져 | -1/4 | 남원  | 차차흐려져  | -4/2 |
| 해남 | 차차흐려져 | 0/4  | 홍산도 | 비 또는 눈 | 2/5  |
| 장성 | 눈     | -4/3 |     |        |      |

◇바다 날씨

|    |     | 오전           | 오후           |
|----|-----|--------------|--------------|
|    |     | 풍향           | 파고(m)        |
| 서해 | 앞바다 | 서~북서 1.0~2.0 | 서~북서 2.0~3.0 |
| 남해 | 앞바다 | 서~북서 1.5~2.5 | 서~북서 2.0~4.0 |
| 남해 | 서부  | 북서~북 0.5~1.5 | 서~북서 1.0~2.0 |
| 남해 | 서부  | 북서~북 1.0~2.5 | 북서~북 2.0~4.0 |

◇생활지수

|    |    |
|----|----|
| 동파 | 25 |
| 운동 | 40 |
| 빨래 | 70 |

◇주간 날씨

| 13(토) | 14(일) | 15(월) | 16(화) | 17(수) | 18(목) | 19(금) |
|-------|-------|-------|-------|-------|-------|-------|
| ☁     | ☁     | ☁     | ☁     | ☁     | ☁     | ☁     |
| -3/1  | -3/5  | -1/6  | -2/2  | -4/0  | -5/1  | -2/4  |



할아버지 할머니 저 예뻐요? 연말을 맞아 11일 애플B유치원(원장 최봉훈) 7세반 원생 45명이 광주시 동구 용산동 노인요양시설 운영실버빌을 찾아 위문품 등을 전달한 뒤 어르신들 앞에서 앙증맞은 울동을 선보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직장인·대학생 연말 술자리 ‘주인공 되는 비법’ 화제

### 당황하지 말고 ‘앱·SNS’부터 검색

### 맞춤형 건배사·술자리 게임 등 소개

‘준비된 자만이 살아남는다.’ 젊은 직장인·대학생 사이에서 ‘연말 술자리 주인공이 되는 비법’이 스마트폰 앱과 SNS 등을 통해 공유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에는 신입이 한마디 해보지?”라고 술자리에서 건배 제의를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회사 건배사’ 앱(애플리케이션)을 찾아보면 된다. 송년·신년·직장·모임·계절 등 상황에 따라 맞춤형 건배사를 검색할 수 있다.

회식이 잦은 연말에 날썰리자 자신의 음주량을 입력·관리하고 통계까지 내는 앱을 활용하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다. 음주 적정 수위를 넘으면 숙취에 시달리는 모습의 캐릭터가 술을 자제할 것을 권한다.

주사위·사다리게임·병들리기 등 서먹한 분위기를 풀 수 있는 게임 앱도 50여 개에 달한다. ‘소맥’(소주·맥주 혼합주)의 황금 비율 등을 알려주는 폭탄주 제조법 앱을 활용해서 상사·선배의 점수를 딸 수도 있다.

사용자의 제보를 통해 실시간으로 음주운전 단속위치를 알려주는 앱 20여 개

는 이미 100만명이 다운로드했다. 일부에서는 “예비실업자 양성 어플”이라며 “연말 교통사고 주범인 음주운전을 조장하는 것이냐”며 못매를 놓기도 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최근 직장인·대학생 7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송년회에서 가장 환영받는 유형은 ‘선뜻 회식비를 쾌척하는 큰손형’이 35.1%(259명)로 꼽혔으며 ‘가무(歌舞) 분위기 띄우는 스타형’(24.0%·177명)이 뒤를 이었다.

한편, 회식비 안 내는 빈대형(25.7%·190명)이 송년회 꼴불견 1위로 선정됐으며 ▲주사 부리는 고주망태형(24.4%) ▲심각한 노래만 부르는 킬리만자로 표범형(14.3%)도 있었다.

지난해에 이어 노래방에서 가장 많이 불린 노래는 임창정의 ‘소주 한잔’이었다. 올해 JT(태진)노래방 인기곡 100위를 보니 ‘내꺼인듯 내꺼 아닌 내꺼같은 너’ 열풍을 불었던 소유·정기오의 ‘쌈’은 5위를 차지했다. ‘사랑의 배터리·Tears·벚꽃엔딩’ 등 전형적인 분위기 띄우기용 노래도 순위에 들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 광주·전남 눈 많고 기온 ‘뚝’...다음주까지 추위 계속

휴일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은 많은 눈과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2일 광주·전남지역은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오전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 다음날까지 이어지겠다”며 “북쪽으로부터 찬 공기가 남하하면 서 기온도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11일 예보했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3도~7도 분포를 보이겠다. 이는 평년기온보다 2도~3도가량 낮은 기온이다. 예상 적설량(강수량)은 2~8cm(5~10mm) 내외다. 주말인 13일 낮 최고기온은 전날보다 3도~4도가량 더 떨어진 0도~영하 4도 분

포를 보이겠으며 14일에도 전날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다. 이번 추위는 오는 19일까지 이어지다가 점차 평년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맑은 눈이 내리고 바람도 강해 체감온도는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비닐하우스 붕괴 등 시설물 피해와 빙판길 사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 최대부수    광주일보 062-222-8111

광고심의필 : 심의번호 2013-GN1-10-0067 \*이 제품은 '저음'이 아니며, '사람성이 주역사'를 과 '사람'을 잘 듣고 사용하십시오.

# 또는 보청기를 처음, 다시 하려면...!

- 매우 중요한 사실 -

일반적으로 귀가 어두우면 보청기로서 소리를 크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인성(노화성), 신경성 난청은 다릅니다. 소리만 크게 해주면 청각 인식범위가 좁아 소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웅웅거립니다. 이는 청각 신경세포가 퇴화되어 보충현상(Recruitment)이라는 특이한 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청기에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보청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소리를 크게 하되, 말소리(어음)와 여러가지 소리를 잘 인식·식별하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적 기능이 없으면 소리는 크게 들리지만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망합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한 것이 '맥소' 보청기의 기술·기능입니다. 대한보청기는 맥소보청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난청과 보청기는 소리의 인식과 식별의 기술이 핵심이므로 대한보청기는 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잘 들을 수 있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가격 부담이 적어야' 하므로 '맥소'는 경제적인 가격으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맥소 '프로'**    **맥소 '스텝'**    **맥소 '크리스프'**    **맥소 '스코프'** 등은 그러한 상위기능의 제품군으로 소개됩니다. 대한보청기의 본사 직영센터는 보청기의 상위핵심 기술로서 소리의 식별·인식의 기술 및 기능을 매우 중시하며·누구나 잘 들을 수 있도록 맥소를 시험권장해 드리므로 안심하고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보청기 본사 직영센터의 특징점 - 직영가·18개월 무이자 할부·렌탈·편리한 직영 시스템**

◆강안본점 0212248-5600    ◆종로본점 021743-8100    ◆강남본점 021542-8500    ◆송파·잠실본점 021420-2090    ◆영등포본점 0212637-2800    ◆관악본점 0213285-7600    ◆여의도본점 021761-8883    ◆인천(부평)본점 0321516-2200    ◆수원본점 0311248-7200    ◆분당본점 0311707-5787    ◆일산본점 0311917-1100    ◆의정부본점 031840-2001    ◆구리본점 031551-1310    ◆안산·시흥본점 031407-2999    ◆천안·아산본점 041545-2006    ◆청주본점 0431225-2900    ◆대전본점 0421486-9944    ◆대구본점 0531253-4400    ◆대구서부본점 0531657-3700    ◆대구북구(칠곡)본점 0531311-7900    ◆포항본점 0541231-8070    ◆강원(원주)본점 0331731-2114    ◆부산본점 0511819-0038    ◆부산북구본점 0511335-7800    ◆울산본점 0521256-9050    ◆마산·창원본점 0551222-3050    ◆전북(전주)본점 0631251-4999    ◆순천·여수본점 0611741-4880    ◆광주·전남본점 0621430-8900

**대한보청기**    www.maxo.co.kr

**전국 무료 천사 방문**  
매장 방문이 어려우신가요?  
365일 무료 방문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1599-9040**

**책자 무료발송**  
-보청기의 종류·가격·시험테스트  
-상담·검사·구입·무이자할부 등 안내  
(본사)2248-5600 (종로)743-8100  
(강남)542-8500 (인천)516-2200  
(대전)486-9944 (대구)253-4400  
(부산)819-0038 호남(광주)430-8900

- 단체상담 -  
지원 신청 접수중